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2월 19일 (제88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발견이란?

발견(發見)이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사람과 사물을 다르게 보는데서 출발하고 기인한다. 성공한 사람들과 위대한 발명가들은 사람과 사물을 다르게 보는데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창안해냈다.

나는 과학이나 의학을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것 역시 다수의 눈이 아닌 다른 눈을 따라 가능하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골리앗을 큰 용사로 보아 그 위협에 눌렸고, 다윗은 골리앗을 뚱개로 보았기에 잡을 수 있었다. 다윗은 우선 막대기로 골리앗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성을 잃고, 개처럼 판단력을 잃고 덤빌 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 이겼다. 다윗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다르게 본 것이다. 사람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을 앓는 친구를 둔 네 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병 고침을 받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때 네 명의 친구는 다른 눈으로 예수님께 접근한다. 바로 지붕을 뚫어 친구를 매달아 내리는 방법이었다. 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다른 방법이고 발견이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 다르다. 학교에서 1+1=2라고 할 때, 에디슨은 1+1=1이라고 했다. 다들 틀렸다고 했고, 이걸 고집하는 에디슨은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과연 에디슨이 틀렸을까? No. 다른 눈을 가졌을 뿐이다. 진흙 한 덩이와 또 다른 한 덩이를 합하면 큰 진흙 한 덩이가 되고, 물방울 하나와 하나가 합쳐지면 큰 물방울 하나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무조건 내 지식과 내 생각이 다르니 상대를 틀렸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다른 눈을 가진 에디슨이 역사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 같은 눈을 뜨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을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갖자.

안보 없이는 성장도, 미래도 없다

미일 정상회담 일자에 맞춰 북한은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성향을 떠보려는 것인지,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포석에서 벌인 일이겠지만, 한반도를 점점 더 위기로 몰고 가는 북한정권의 행태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스럽다. 대북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의 공약이 허언을 넘어 실제 집행되고 있는 현실(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싸우며 건설했던 것처럼, 우리도 국방을 튼튼히 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처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숫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 그 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

도자, 먼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를 요구한다.

예루살렘 성이 훼손되었다는 소식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조국의 현실에 일신의 영달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느헤미야,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백성들을 독려하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낸 느헤미야, 바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하다.

우리가 앞장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자!

입국을 90일간 차단하는 반 이민 행정 명령,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 등)이고 보면, 설마, 설마 하는 일들이 설마로 그치지 않을 공산이 점점 커져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에 국가 리더십은 공백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내부적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으니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돈 있는 자와 힘 있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힘센 자가 이깁니다. 당장 주먹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먼저 내가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보가 없으면 결코 경제성장도, 우리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날 느헤미

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느4:7~18).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가자 이를 분내며 시기한 대적들이 공격한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하며 대역사를 완료하였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리더십이 아닐 수 없다. 일신의 안위에만 골몰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우리는 먼저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 먼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지

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치러진다. 모든 헌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더 이상의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 없이, 갈등과 대결을 종식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의 에너지로 국민을 통합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목사님이 평화통일 기도성회 때마다 강조하셨듯이, 더 이상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협력의 구도로 남과 북이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한대로 피 한 방울 흘리는 일 없이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18~25)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욥 33:15~18).

학창 시절, 미로를 만들어 실험용 쥐가 길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처음 쥐를 미로에 넣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다 벽에 막혀 되돌아오고, 조금 나가다 되돌아 나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다 쥐도 지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쥐가 길을 잘못 들 때마다 안타까운 탄성을 지르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이 한 눈에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쥐가 미로를 헤매는 것,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 치 앞을 몰라 헤매고, 가다가 지쳐 주저앉고, 심지어 다치기까지 하는 것이 미로 속의 쥐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직진하라!”,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어떻게요? 꿈으로, 이상 중에 보여줍니다. 제한된 지혜와 감각을 지닌 인간들에게 초월하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꿈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꿈에 대한 말씀이 66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꿈으로 많은 계시를 하셨습니다.

네가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그는 구원자임이라.”고 말했습니다(마1). 하나님이 꿈을 통해 대의(大義)를 요셉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꿈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해산할 때까지 동침치 않았습다.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헤롯에게 가지 않은 것도 꿈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마2:12).

창세기 20장에는 그탈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 취하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의 아내이니 손대지 말라. 그러면 네가 살려나와 네가 돌려 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것이다.” 꿈을 깬 아비멜렉은 번민하다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많은 예물도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의 꿈(창28), 요셉의 꿈(창37), 솔로몬의 꿈(왕상3) 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님은 이렇듯 꿈을 통해 의로운 자들이 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

시며, 미래를 예시하시고, 격려도, 교훈도 하십니다. 제가 32년을 수치와 부끄럼을 당치 않고,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꿈의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쯤의 일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무리했는지 제 몸은 많이 수척해있었습니다. 70kg를 훨씬 넘던 몸무게가 56kg까지 빠져버렸으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결단하고는 아차산 근처 숲 속에 있는 별장식 주택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차를 운전 해주던 이후용 집사가 한 꿈을 꿴다는 겁니다. 그 집 우물을 파고 또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시대 목사도 꿈을 꿴다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가더니 죽더라고 말했습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

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하는 옆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제가 꿈을 무시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쯤 백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지 않습니다. 개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개망신당하고, 개처럼 두드려 맞는 겁니다. 요즘 해외에서 집회 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몸을

혹사한 연고로 몸에 적색경고등이 켜졌고, 더욱이 하나님이 이 꿈으로도 여러 차례 경고하

셨으며, 친히 “네 일을 하는 것이 다.” 라는 음성까지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이 경고를 무시한 채 ‘믿음이야’ 하고 집회를 강행하다 쓰러지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경고를 무시한 제 책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시73:20).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줍니다. 땅의 중앙에 고가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아래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해쳐서 들짐승과 새들이 떠나게 하고 간신히 그루터기만 남겨 두라고 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의 사람이 해몽했으니 제대로 한 것입니

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계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곱 해 동안이나 동물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빌라도도 아내의 꿈을 무시해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마27:19)?

해몽도 중요합니다.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창40:8). 그래서 늘 기도하는 요셉과 다니엘이 해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허황되고 거짓된 꿈 해석자들(신13:1~5)에 대한 모세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렘23:25~32)도 있으니 꿈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매일 일기를 써라 꿈의 노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일기를 쓰세요.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일기에 꿈에 계시하신 것들을 다 노트하면 잊지 않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단 건물을 인수하려 할 때 두 배가 난파된 꿈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고 포근한 잠을 같이 잔 목사님을 따라 목회를 시작한 꿈도 다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이론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누군가와 동업하려고 합니까?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거든 그것이 당장에는 합당하지 않게 보여도 그 계시에 따르십시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가장 늦은 것이고, 가장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듣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고,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꿈이나 이상으로 당신의 앞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2:17).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고난과 믿음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걸 으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을 영화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장면에는 두 줄의 선명한 발자국이 있었습 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 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몇 가지 장면에서는 단지 한 줄의 발자국만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 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는 궁금해서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물었습 니다.

“주여, 주님은 제가 일단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갈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 밖에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정작 필요할 때면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소중한 사람아. 난 너를 사 랑하고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힘들 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내가 너를 두 팔 에 안고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줄 밖에 없었단다.”

지금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나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항 상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있나요? 아니 면 혹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하고 의

문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항상 크고 작은 문제와 직 면하게 되고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습니 다. 문제가 없는 삶은 죽은 사람에게만 주 어지는 특권입니다.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 외된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 나님께 의지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닐까요?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 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 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기반으로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함께 할 때 시련 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 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는 믿음에 따른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 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라

한 소년이 암탉이 품고 있는 알들 속에 근처 산에서 발견한 독수리 알을 집어 넣었다. 드디어 병아리도 독수리도 깨 어났다.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라고 생각하며 병아리처럼 행동하였다. 그러 던 어느 날, 큰 독수리 한마리가 상공 을 멋지게 날다가 닭을 채가는 게 아닌 가? 그때 독수리 새끼는 자기를 발견했 다. 독수리 새끼는 이제까지의 생각과 행동을 청산하고 날개에 힘을 주며 허 공을 치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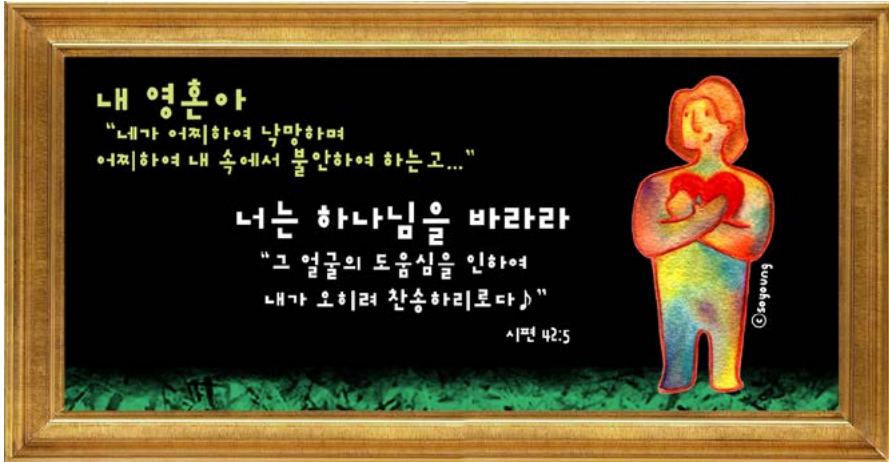
믿음의 사람 중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전능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 으로 나가면 작아진 모습으로 살고 있 다.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 낙담 속에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그것 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확립 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 씀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정체성이 회 복되면 세상 앞에 담대해진다.

집나간 탕자가 거지꼴로 돌아와서 ‘아 버지의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비단옷에 가락지까지 끼워 주고 잔치를 벌이며 ‘이는 죽었다가 살 아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신분을 회복 시켜주었다. 사울이 바울 된 이도 신분 을 깨닫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외쳤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당당함’을 보라. 목사님은 우리에게 “내 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 이나 똑같다!” 하시며 할 수 있다고 힘 을 주신다.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과 당당 히 맞서며 도전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낭중지추(囊中之錐)가 되기 위하여

뮤지컬 배우의 역할 중에 ‘커버(cover)’ 라는 것이 있다. 커버란 말 그대로 주연 배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대에 서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자신의 배역 에, 주연 배우의 배역까지 맹연습하는 배 우를 말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한 번’을 위해 커버 배우는 남모르는 땀방울 을 몇 배로 더 흘려야 한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인정받는 레너 드 번스타인은 원래 무명의 부지휘자였 다. 어느 날 그는 메인 지휘자를 대신하 여 급작스럽게 공연의 지휘를 맡게 되었 고, 감동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로 그날 온 청중을,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 고야 말았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날을 위해 평소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 아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새 마음으로 달려가다가도 때로 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지금 하는 이 것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불안으로 낙담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 리가 가져야할 마음은 나 자신과 하나님 에 대한 의심과 불신도 아니고 뭔가 빠른 시일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도 아니다. 다만 훗날 까지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

음이며, 또한 맡겨진 환경 안에서 날마 다 나아감으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아무 지고 적극적인 자세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 갔을 때, 그가 처음부터 이집트의 국무 총리를 목표했던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는 낙망하지 않았고 반드시 자신을 끌어 올리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매사 성실 을 다해 실력을 키웠을 뿐이다. 결국 이 를 바탕으로 요셉은 국무총리로서도 부 족함 없이 능력을 발휘, 온 이집트의 존 망을 받는 인물로 남았다.

낭중지추(囊中之錐),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려면 뾰족해야 한다. 왕의 기 름부름 받은 다윗을 도망자가 되게 하시 고, 80세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영 도자로 쓰신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우리의 내실을 다지신 다. ‘반짝’은 없다. 목적이 없는 훈련도 없 다. 열매 맺기를 사모하되, 내실을 기하 는 시간을 귀히 여겨 만반의 준비를 아 기지 말자. 때가 됐을 때 힘차게 날아오 를 것이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 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롬12:12).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플러스 or 마이너스 사고방식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생각을 주기 위해 다윗과 골리앗 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고 한다.

다윗은 15세의 어린 목동이었고, 골리앗 은 2.9m의 큰 거인으로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였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대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싸워보 지도 않고 골리앗의 말에 졌으며, 생각 에서부터 졌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생 각이 달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 시면 이긴다.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달 려있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가면 이긴 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이기 고, 말로 먼저 이겼다. 그리고 골리앗 앞 으로 나아가 물뿔들을 던져 골리앗을 넘 어뜨렸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플러스 사고방식과 마이너스 사고방식 2가지가 있다. 플러 스 사고방식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플러스되게 생각한다. 자연 적으로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생기게 된 다. 반면 마이너스 사고방식은 무엇이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등 부정적 으 로 마이너스되게 생각하여 결과적으 로 손해 보는 마이너스 현실을 초래한다.

다산 정약옹은 조선왕조 정조 후기 때 인 물이다. 그는 정조를 도와 근대사상을 불 러들이고 개혁을 시도한 실학자요 천주 교인이다. 그러나 그는 노론의 모함으로 전남 강진의 만덕만 기슭에 자리한 조그 만 초가집에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 게 된다. 그러나 그는 유배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 등 500 여권에 달하는 조선조 후기 실학을 집대 성했다. 다산은 그 18년을 좌절하며 허 송세월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의 플러 스 발상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나의 성공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 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 문이다.” 라고 했다. 부정적인 생각은 쉽 게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 가 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불가능하다 싶은 일들 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 이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어떤 상 황이든 플러스되게 해석하자.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부족한 믿음으로 응답 받는 법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한 스테반의 기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닫혔던 태의 문을 연 한나의 한 맺힌 기도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녕 죽으리라고 선고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 받은 그 기도 말이죠.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좋아하는 건, 그가 그저 간절하게만 하나님께 살려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행했던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근거 삼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물다섯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과 아세라 목상 등을 찍어 없애 버립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케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그도 훗날 범죄하여 죽게 될 상황에 이르는데요. 그때 그는 침륜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이전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통곡합니다. 결국 죽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를 살려낸 것은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었죠.

살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만 막상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이렇게 되곤 하지요. 하나님을 백 퍼센트 신뢰하지만 저의 믿음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탓에 기도를 하는 중에도 마음 깊은 곳에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들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봅니다. 비록 제겐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을만한 믿음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지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믿음은 있기 때문이지요.

올해 초, 저에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일이었는데요. 저는 올해 4월이 되면 8년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잠시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과 유학원으로부터 저처럼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 그것도 퇴사를 하고 미국에 가려면 학생비자 발급이 아무래도 힘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제가 주님을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았던 것, 물질을 아끼지 않았던 것, 타협하지 않았던 것, 포기해야만 했던 것, 그것들을 기억해서라도 제가 바라던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쉽게 학생비자를 발급받았고, 나머지 한 가지 문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억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저의 부족한 믿음에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비록 과부 두 렷돈처럼 남들 보기엔 작은 행실일지라도 나에겐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지요. 때론 우리의 선한 행실에 아무런 보상이 없는 듯 느껴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행실은 하나님께 기억된바 되었고 그것이 훗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 테니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뒤에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는 백발의 철학자가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내렸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공원 관리원이 통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그때 철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사색과 명상, 고행과 번뇌를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식약동원(食藥同源) 감기편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누구나 감기에 잘 걸립니다. 음식으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며 감기를 예방하고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쑥으로, 그 안에는 섬유질, 칼슘, 인, 철 그리고 비타민A, B1, B2, C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C가 들어있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보다는 몸이 찬사람,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찬 경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쑥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는 치네올이라는 성분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나 냉증이 있는 경우에 쓰입니다. 여름철 잘 자란 쑥의 잎을 말리거나, 봄에 피는 연한 잎을 말려서 1회 2~5g씩 물 200ml에 달여 마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민들레로, 이는 열을 내리고 땀을 내며, 위를 튼튼히 하는데 쓰이는

데, 기침, 가래, 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기력이 좋거나 몸에 열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더 좋으며, 몸이 너무 차거나 기운이 없는 경우는 복용을 금지하거나 소량 복용하여야 합니다. 뿌리와 꽃을 함께 넣어 술을 담가 마시면 약효가 더욱 강하며, 뿌리는 꽃이 피기 직전의 것을 사용하는 반면, 꽃은 4, 5월의 꽃을 채취해서 사용합니다. 뿌리와 꽃의 2~3배 되는 소주를 붓고, 설탕이나 꿀을 민들레의 1/3 정도 섞어 20일 이상 우려내면 되고, 혹은 말린 민들레 5~10g에 물 200ml를 붓고 달여 마셔도 좋습니다. 쓴 맛이 있으니 물에 충분히 우려낸 다음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도라지로, 가래가 끓고 기침이 심한 경우나 호흡기 질환, 기관지염에 중요한 약재가 됩니다. 주로 뿌리줄기 부분이 약재로 쓰이는데, 이에는 사포닌의 일종인 플라티코딘과 플라티코디게닌이

함유되어 있어 심한 기침이나 가래를 멎게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이 가능하며, 말린 도라지 2~4g에 물 3컵 정도를 붓고 달이거나 가루를 내어 복용합니다. 가정에서 주로 먹는 도라지나물로는 통도라지 200g, 소금 2큰술, 다진파, 마늘 2작은술, 소금, 통깨, 기름을 준비하여, 도라지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손질한 도라지를 살짝 데쳐 프라이팬에 위의 재료를 볶아서 복용하면 좋습니다. 고감기가 심한 경우는 도라지 뿌리 25g정도를 물 3컵에 부어 반으로 될 때까지 달인 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기에 걸리면 몸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몸과 마음을 한번 충전하라는 신체의 목소리라고 인식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 걸음 쉬었다가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화 다스리기

세계에서 ‘화병’이라는 병명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하죠? 그만큼 화를 많이 키우고, 또 안고 사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나 화를 내기보다는 화를 삭이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제니스 윌리엄스 박사가 8년간에 걸쳐 48~67세 사이의 성인 1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발표한 결과,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내기 전에 세 가지만 생각해볼길 권합니다. 건강과 바꿀 만큼 화낼 상황인가? 후회하지 않을 정당한 분노인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에리마 게이스라는 학자가 발표한 실험결과는 우리의 관심을 끄니다. 그는 사람이 호흡할 때 내쉬는 숨을 유리관을 통해 액체공기로 냉각시킨 결과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침전물의 색깔이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화를 내고 있을 때에는 밤색, 고통이나 비애에 빠져 있을 때에는 회색, 후회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핑크색의 침전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났을 때 생긴 밤색의 침전물에는 특정 종류의 독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는 이 실험을 토대로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고 하니 참으로 섬뜩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인도의 비폭력주의자)는 “자신이 옳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고, 자신이 틀렸다면 화를 낼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당부했다고 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웃다가 원하는 것까지 얻고,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다가 가진 것까지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화’ 계속 내시겠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마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전7:9).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